

식품사막화에 대한 단상(斷想)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
남광주농협 사외이사



다는 반증일 것이다. 요즘 MZ세대나 워킹 맘의 경우 집 앞 편의점이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에서 모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 굳이 시장이나 중대형 마트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일대 빅뉴스다. 유명셰프이든 숨은 고수든 오로지 요리한 음식을 맛으로만 대결하고 평가받는 경연프로이다.

또한 유명 연예인들이 산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삼시세끼'를 비롯해 '언니네 산지직송', '편스토랑'에 이어 외국에서 현지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정글밥'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그런가 하면 공영TV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거주 어르신의 식재료를 신청받아 구입 배달해 주는 '팔도 배달맨'(Men)과 드론 배달도 관심이 많으며 고향요리사가 출장요리를 해주는 기회도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마트 식재료 구입을 위한 1000원 택시나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그마저 이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라면과 김이 각각 1조 원 이상 수출했고 농식품이 80억만 달러 수출 등 가히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과거 식품유통에 절대치를 차지했던 중·대형 마트가 일정부분 성장·발전했지만 서서히 정체에 접어들어 국내유수 대형마트가 울 초 명예퇴직과 계열사 합병을 감행했다. 이는 더 이상 오프라인(off-line) 유통산업의 성장·발전을 기대하기 어렵

뿐만 아니라 식품위주 새벽배송 대명사인 쿠팡이 국민 반수이상 고객을 확보하여 연간매출액 4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뉴스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일, 야채, 육류까지도 구비한 편의점수가 5만5000여개로 인구 배(倍)가 넘는 일본을 앞질렀다고 한다. 도시에서 온라인(On-line) 직접구매나 배달음식이 성장·발전하는 것은 그 이면에 '택배'란 유통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 반대로 농촌지역에선 택배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우체국택배가 경영을 맞출 수 없어 총복 음성 어느 사설우체국이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래서 농촌지역 여러 여성봉사단체에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봉사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소재 마을회관에서 공동취사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마을이 많으나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 농임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어·산촌의 실제 마을 단위로 볼 수 있는 행정리·동에 식품소매점이 단 한곳도 없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73.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93%로 최고이고, 영광군 92%, 중도시인 순천시마저도 92%로 식품소매점이 행정리·동에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식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용어를 '식품사막(food desert)화'라고 한다. 식품사막화는 1990년대 영국의 한 공공주택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신선한 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됐다. 미국의 경우 거주민의 3분의1 이상이 반경 800m 이내에서 식품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사막'이라고 규정하고 식품사막 거주민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시행과 식품점 창업자에게 세제(稅制)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거주자로부터 반경 500m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으로 신선식품 접근 문제인 푸드 액세스(food-access)에 중점을 두며 커뮤니티버스나 승합택시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위탁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지역 영암농협 '동네방네 기찬장터'와 고흥거금도농협 '화목장터'인 이동마트를, 경기도 포천소출농협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선 냉장·냉동 등 유통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얼마 전 영광군을 방문했던 농림식품부장관은 농촌지역의 식품사막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판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과 의회가 충남형이동수퍼마켓을 발족, 운영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지역은 인구 노령화의 가속, 지방소멸 우려, 식품사막화가 다수 존재함으로 관련 정책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社說

고수온피해 어업인 정부가 지원 나서야

섬 기초의원협 제도개선 촉구

전국 섬지역 14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19일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결성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는 완도군의회를 비롯해 여수시와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고흥군, 등 전국 14개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일상이 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해양관측 사상 최장일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면서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발간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도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6년간 한국해역의 연평균 수온이 0.7도 상승하며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도

8만 톤으로 전년대비 12.5%나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13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액도 전체 피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종도 난류성으로 바뀌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대표 어종인 고등어, 살오징어, 멸치 등이 줄어든 반면 난류어종인 방어류와 전갱이류, 삼치류는 지난 40년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한다. 오는 2050년대에는 삼치의 출현확률이 연중 증가하고 연안 정치망의 아열대성 어종 출현도 최고 30% 늘어날 것이라는 게 수산과학원의 예측이다. 올해 김과 전어 등 전남이 주산지인 어종의 작황이 최악으로 떨어진 것도 급격한 수온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고수온으로 어종이 변하고 어획량이 줄면 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정부와 국회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바꾸고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어업인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과 육상 양식을 상용화하는 등 양식업의 변화도 시급하다. 고수온이 가져온 피해는 수급 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제효과 큰 '강진 반값여행' 더 확대하자

계절성 극복 등 보완책 필요해

올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강진군의 '반값여행'이 도입 10개월만에 15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8일 강진군 웰니스 푸소센터에서 열린 '제2회 반값여행 1번지 강진 포럼'에서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목포대 관광학과 심원섭 교수는 반값여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심 교수가 반값여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산업파급효과·한국은행)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 소비금액은 37억 6000만원, 돌려 받은 정산금 사용액 12억 4000만원이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0억원, 취업유발효과 2213명이었다. 반값여행이 단순 관광을 넘어 관광객 즉 생활인구 증가, 지역화폐 회전을 증가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반증이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반값여행을 더 정교하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심 교수는 "특정 시즌이 아닌 모든

시즌에 관광객이 몰리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발굴하고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모델링 및 보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현재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희 박사는 "강진 관광은 봄·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지만 여름과 겨울은 봄·가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가적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계절성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김형우 전 조선일보 기자 역시 "내년도 반값여행 시행 때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민간 차원에서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반값여행뿐만 아니라 푸소 등은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많다. 강진군의 창의적인 정책 발굴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더욱 빛을 발한다. 다만 군은 단기 성과로 자화자찬은 금물이다. 정책적으로 부족한 건 채우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강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더 발전하는 강진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근처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현장에 신발 한 켤이 남아 있다. 현지 경찰은 51세 남성이 맨해튼 곳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서석대

'스치기만 해도 KO'. 1980~1990년대 사각 링 위를 호령했던 마이크 타이슨(58)의 펀치 위력이다. 1990년 이전까지 그는 37전 37승 33KO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타이슨과 대결을 펼친 선수 상당수가 3분도 버티지 못하고 링 위에 쓰러졌다. '신의 재능'을 갖춘 타이슨에게 '세기의 핵주먹'이라는 수식어는 당연한 결과다.

'핵 주먹' 타이슨은 1966년 6월 30일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불우한 환경 속에 그의 10대 시절은 암울했다. 그러나 전설적인 복싱 트레이너 커스다마토를 만난 타이슨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다. 키 178cm에 리치 180cm. 커스 다마토는 헤비급으로선 불리한 신체 조건인 타이슨에게 이른바 '피카부 스타일(peekaboo style)'을 전수시켰다. 피카부 스타일은 가드를 얼굴에 바짝 붙이고 머리를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며 상대방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공격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무공이다.

타이슨의 재능은 프로 무대를 휩쓸고도 남았다. 1986년 역대 최연소인 20세의 나이로 WBC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87년 3월 제임스 스미스를 판정으로 꺾고 세계복싱협회(WBA)타이틀을 따내더니 그해 8월 토니 터커를 역시



판정으로 누르고 국제복싱연맹(IBF) 타이틀마저 차지했다. 그가 WBC 챔피언 등극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헤비급 천하통일을 완성했다.

하지만 스승인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의 영광을 지켜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정상에 오르며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한순간에 낙오로 떨어졌다. 1991년 7월 미스 블랙 아메리카 후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1997년 6월 홀리필드와의 '세기의 재대결'에서 그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 '핵 이빨'이라는 조롱거리가 됐다. 이후엔 빛더미에 나왔기도 했다. 최근엔 타이슨이 58세의 나이로 복귀전을 치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타이슨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AT&T 스타디움에서 제이크 폴(27)과 프로복싱 헤비급 경기를 치렀다. 이미 녹슨 주먹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는 0대 3 판정패를 당했다.

타이슨은 신이 선물한 주먹으로 링 위에서 '핵 주먹'이란 전설이 됐지만 모든 걸 잃었다. 방황하던 10대 시절 타이슨을 양아들로 삼았던 커스 다마토가 오랫동안 그의 걸을 지켰다면... 아마도 타이슨은 무하마드 알리와 슈거 레이 레너드를 잇는 전설의 복서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